

産業環境管理, 이대로 좋은가?

許 木 / 濟州大 해양환경공학과 · 〔博〕

최근, 일간지의 1면 머릿기사로서 연일 장식되고 있는 산업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한때나마 산업환경(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리 분야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예사롭지 않다. 신문에 나와 있는 환자의 사진을 본 순간 나의 뇌리에는 벌써 여러 해가 지난 일들이지만 정말 무섭도록 나쁜 작업환경속에서 땀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함을 느꼈다. 물론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작업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염원하기는 한다. 아울러 유해한 작업환경조건들을 관리, 보완, 개선하는 산업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환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이 기회에 살펴 봄으로서 몇가지 제안을 함께 하고자 한다.

지난일을 돌이켜 보자. 우리나라에서의 산업환경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활동은 1956년 대한석탄공사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 대한 규폐증 진단과 작업환경 및 적성조사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카톨릭 의과대학을 비롯한 각 의과대학에서 예방 의학을 전문화하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환경조건 등에 관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된 독립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1982년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산업환경관리가 도입되어 실시된지가 어언 25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직업병의 예방, 근로자의 건강은 외면한 채 돈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심을 두고 그의 실시요령만 가지고 지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나의 잘못된 생각일까? 이렇게 산업환경관리는 모든 사람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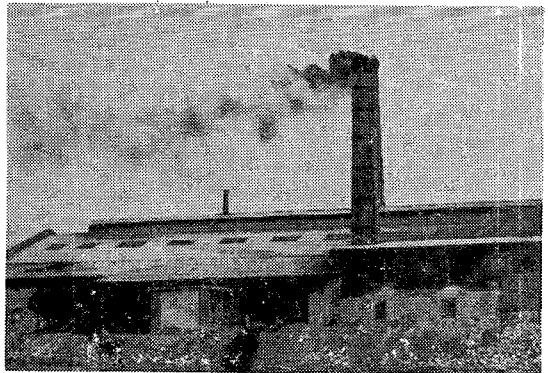
산업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첫번째 이유는 「기업주의 도덕관념과 이해 부족」 때문인 것이다.

부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부도, 기업주도 심지어는 근로자 자신들까지도 산업환경관리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한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로서 잘못 인식되어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관리의 잘못 시행되어온 점과 그 연구분야 또한 낙후되어 왔음에는 여러가지 그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주의 도덕관념과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의견은 기업주들이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산업환경관리보다는 생산시설에 투자하여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산업환경관리를 위해서 돈을 쓰려하지 않는 잘못된 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산업환경관리로의 기업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고 홍보, 계몽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도 이 시대에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 상호간의 관계를 계량화하여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돈과 근로자의 건강을 저울질해서 양자간에 흥정을 보는 듯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의 건강은 무조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속의 환경권의 기본개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산업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역설되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 결국은 기업주로 하여금 산업환경관리에 돈을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번째 방법은 법적으로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법이며, 두번째 방법으로는 기업주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와 기업주의 도덕심만으로 모든 것이 시행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환경 또는 산업보건 분야를 살펴볼 때 강력한 법이 있고, 기업주의 양심이 되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문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환경관리를 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경험과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예방의학을 전문한 의사가 과연 산업현장의 작업환경개선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 기업주의 입장에서라도 산업환경관리를 위해 예방의를 채용하여



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그것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산업현장에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학적 기술의 바탕을, 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기에 수년전부터 국가기술검정시험과목에 산업위생관리기사라는 분야를 신설해서 현재까지 기술자격증을 획득한 기술자들이 소수나마 배출되고 있음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된 기술자들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산업체가 없다는 사

법적인 규제와 기업주의 도덕심 회복만으로
 우리의 산업환경관리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이 함께
 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실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규상에는 사업장규모가 상시사용근로자수로서 광업, 석탄 및 석유화학계열의 사업장에서는 500인 이상, 비철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및 금속산업계열의 사업장에서는 1,000인 이상 그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장에서는 2,0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위생보건담당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자격조건에서도 그 대상의 폭을 일반간호사까지도 가능하도록 아주 넓게 개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기업주가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니고,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고급기술인력만을 고집할 것인가? 이렇게 산업현장에서만 이러한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행정관서인 노동부에서도 각 산업장에서의 작업환경의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분야에 고급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종사하고 있는가? 또한 산업보건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가운데 실질적인 산업환경관리기술자가 있는가? 물론 산업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산업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자, 실무기술자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실정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환경 관리분야에서 정말 절실하고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돈보다도, 방지사설보다도, 일할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정기건강진단시 뇨중 Protein, Urobilinogdn, 혈액비중만을 측정하는 데도 면허를 소지한 임상병리기술자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지으면서 작업환경관리와 측정

등의 고도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아무나 해도 무관하다는 것인가. 이와같은 산업환경관리 전문직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하에서 근로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는 시기는 묘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하는일이 기업주로 보아서 돈을 벌어주는 생산직종이 아니고 돈을 쓰는 소모성 직종이기 때문에 탐탁치 않고 환영할 수 없는 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없이는 산업환경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현실적으로 법적인 규제와 기업주의 도덕심 회복만으로 우리의 산업환경관리가 충실히 이루어 질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이 함께 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아직은 적극적인 산업환경관리를 위한 규제가 이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안일한 사고는 떨쳐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영국의 한 기자가 표현한 바와 같이 '그 어느날 갑자기' 누적되었던 오염피해가 형상화되며, 이렇게 형상화된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그 이전에 강구할 수 있었던 예방조치만으로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비와 노력이 투자되더라도 이전의 환경조건으로 되돌리는데 너무나 장기간이 소요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계속해서 제 2, 제 3의 무수한 피해자는 발생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행위가 될 것이다. *